



전북농협·주부모임도시회, 부안 백산고 쌀 홍보행사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과 고향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경리)는 26일 부안 백산고를 방문하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쌀밥 인식전환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백산고 교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시회 임원들과 부안농협, 전북농협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급식소에 쌀을 기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원했다.

김경리 회장은 “쌀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 홍보에 힘을 더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시회는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과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여 범도민 건강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구천동농협,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임직원 워크숍

구천동농협은 지난 7일과 25일 본점 대회의실 및 무풍송지마을 강당에서 조합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소통, 화합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사례소개, 지연인출 및 이체제도 소개, 각 종 금융사기 예방방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소통 및 화합 워크숍은 임직원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소통교육이 진행됐다.

구천동농협 김삼곤 조합장은 “날로 발전하고 지속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 및 구천동농협 조합원들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간의 소통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교육의 자리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25일 시청 2층 제납상황실에서 2024년 제4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22여명이 참석해 올해 체납세액 징수 실적 점검과, 분야별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당성 및 차량 압류·공매, 출구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지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와 사실상 부도·폐업법안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27분 자동차에 납기 내 징수를 재고를 위해 발송된 고지서는 주소 추적 후 재발송하고, 납기 마감 전 문자안내, 거리 홍보 추진,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안내 등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체에 올해 계획한 징수목표 달성과 이뤄지는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꾸준한 장학금 기탁

김제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26일,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08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창립, 후원·재능기부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2013년을 시작으로 총 1천만원의 김제시사랑장학금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송연순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탁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갖고 매년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 시상식’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 탄생 255주년 기념... 전체 31명 수상 영예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5일 김삼의당 기념사업회(회장 조남훈)가 주관하는 탄생 255주년 기념식과, 제6회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 시상식(대회장 김철수)시 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시(詩)부문 일반부 차상 조정자, 학생부 장원 남원국악예술고 김은재 △서(書) 부문 장원 소가광 △화(畵) 부문 일반부 장원 고영숙, 학생부 장원 남원월라초 소경민 등 전체 3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삼의당은 신사임당, 허난설헌, 황진이, 이매창에 버금가는 남원출신 여성 시인으로, 조선시대 우리 문학사



를 살펴보면 詩와 文의 창작과 향유 했던 주체는 대개 양반들이었으며, 대개 양반가의 여인이거나 기녀들만이 문학을 향유하던 시대로, 김삼의당은 여염집 여인으로 문학적 재능을 남긴 남원 문학의 보배다.

김철수 대회장은 “남원출생인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을 통하여 그녀의 묻혀있는 정신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삼의당은 “남원출생인 전국 김삼의당 시·서·화 공모대전을 통하여 그녀의 묻혀있는 정신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노총 전주시지부·전북농협,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의장 박병철)는 지난 25일 화산체육관에서 전주시설관리공단의 노동자들과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전주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관리에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최근 쌀 값 하락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노총·전주시설관리공단·전북농협이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박병철 의장과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전북농협 김영일 총괄본부장, 박종철 전주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등 50여 명이 함께 하였으며, 박병철 의장은 우리 쌀로 만든 밥바게와 식혜 200인분을 전주시설관리공단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연상 이사장은 “농촌과 농업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쌀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군산 재생에너지 관계 기업, 고향사랑기부 동참

군산시는 26일 군산재생에너지 관계기업 대표 및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모은 3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 최영환)가 대표로 전달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2020년 군산시에 설립된 군산 육상태양광 및 군산시 재생에너지 역점사업을 담당하는 출자기관이다.

평소 최영환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 협의 과정에서 만난 임직원들에게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취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며,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했었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애쓰는 군산육상태양광, 세원아너에스 대표와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군산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주셨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통장협의회, 고구마 500kg 기부

정읍시 내장상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최경렬)는 지난 21일, 직접 재배한 고구마 100박스(kg)를 수확해 경로당과 저소득층 공유농장고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내장상동 통장협의회가 주관한 특화사업으로, 쌍암동 일원 150평의 토지에서 약 4개월간 고구마를 재배하고 수확한 결과다. 협의회는 지역 내 36개소 경로당과 저소득층을 위해 이 농작물을 기부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기원했다.

최경렬 회장은 “이번 고구마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은주 내장상동장은 “통장협의회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내장상동이 온정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병철 의장은 “건강한 아침 쌀밥 먹기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전북농협과 함께 쌀 산업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군산 재생에너지 관계 기업, 고향사랑기부 동참

다.”하면서 “귀한 성금을 모아 군산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 한도까지 기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답례품은 쌀, 단팃빵, 박대, 젓갈 등 19개 품목의 특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 윤봉음 애향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기탁

남원시 윤봉음 관계자는 관내 애향회(회장 신동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애향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외에도 윤봉음에 소재한 초·중·고교에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재경향우회 및 자매결연도시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여 윤봉 농산물 판로개척, 등 다방면으로 윤봉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신동열 회장은 “읍민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애향회가 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윤봉읍장은 “애향회 성금은 윤봉읍민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타지에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우리네 이웃사랑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애향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부귀농협,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부귀농협(조합장 김병배)은 지난 25일 군수실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52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배 조합장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귀농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기탁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준성 이사장은 “부귀 농협의 꾸준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귀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부귀농협의 노력이 담겼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청 안계현 안전환경국장,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안계현 안전환경국장은 지난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안계현 안전환경국장은 평소 진안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왔다.

또한 2017년부터 꾸준히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기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장학금 기탁을 하며, 지금까지 총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계현 국장은 “진안군청 서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었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준성 이사장(진안군수)은 “안계현 국장이 보여준 공직 모범과 후대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법인, 산내면에 물품 기탁

남원시 산내면은 관내 지리산황치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양재혁, 이하 법인이) 11월 25일 관내 이웃들을 위해 현미, 오분도미 누룽지 400개(140만원 상당)를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법인은 매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경쟁력 부문에 선정된 마을기업이며, 2018년도에 뽕사골 마을주인 40가구가 한마음이 되어 친환경 농산물인 누룽지, 매주, 김장철 절임배추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양재혁 대표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는 일터로서 주민들에게 나눔을 통해 모두 다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문화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성근 면장은 “매년 연말연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며 기탁된 물건은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